제자들과 함께 달릴 수 있다면…

살레시오 초등 교직원 마라톤 동호회

김춘수 회장 등 20여명 활동

'서브-3' 회원 없어도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실력 자랑

年內 전 회원 하프코스 도전

건강한 학교 만들기 힘찬 레이스

"전교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마라톤 하는 날을 꿈꾸며!"

살레시오 초등학교 마라톤동호회 김춘수(50) 회장의 꿈이다. 20여명 남짓한 교직원들은 대부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 작은 발걸음을 떼었지만 김 회장은 만족스럽지 않다. 제자들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5㎞라도 뛸 수 있다면, 함께 뛰지 못하고 걸을 수만 있어도 좋다. 제자와 함께 땀을 흘리며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항상 김 교사의 가슴을 뛰게 한다.

단순히 동호회 회원들만의 모임이 아닌 자라나는 꿈나무들인 제자들과 교감과 호흡을 목표로 하는 '살레시오 마라톤동호회'는 지난해 연말 창단됐다.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됐지만 외형상 구색을 갖춘 것은 지난해 연말이다.

지난 2006년 춘천마라톤과 섬진강 마라톤등 총 3회 풀코스를 완주했고, 하프코스 15회를 완주한 김춘수 회장의 권유로 살레시오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조선대 운동장과 광주시 북구 석곡동 주변을 뛰면서 건강을 다지고, 교사들간의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의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후 대열을 맞춰 가볍게 뛰면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2바퀴, 3바퀴등을 뛴다. 호흡이 거칠어 지거나 자신이 없으면 대오에서 빠지면 된다.

강제는 없다. 모든게 자율이다.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늘어 교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영수(41)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건강도 다지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 학습방법에 대한 스터디까지 함께 하게 돼 일석이조다"고 자랑이다.

이처럼 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마라톤동호회는 단순한 운동동호회라고 하기에는 아카데미즘 성격이 강하다. 건강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료 교사들과 모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점은 '아이들'이 됐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등 아이들 학습과 생활지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임이다.

그렇다고 마라톤에 대한 식견이나 실력이 짧은 것은 아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만능 운동맨인 김지훈(38)교사는 함평곤충엑스포 마라톤 10㎞와 5·18기념 마라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고, 김용덕(34)교사도 3·1절 마라톤등 각종 대회에서 10㎞를 완주한 실력을 자랑한다. 물론 풀코스나 하프코스를 완주했거나 마라토너들의 꿈인 '서브-3'를 달성한 회원들은 없지만 모두 차곡차곡 성실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김 회장은 "올 해 안에 전 회원들이 하프코스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해 회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목윤애(여·50)교사는 여자 회원들의 맏언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교환과 후배교사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어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기인자(여·49)교사와 정진영(여·41)교사도 역시 3·1절 마라톤대회등 올 3개대회 5㎞를 완주해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마라토너임을 알렸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를 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했지만 5㎞를 완주한 후 자심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재산이 됐다. 아이들에게도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마라톤대회 5㎞를 출전하자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진영조(41)교사, 송경수(38)교사와 박준석(37)교사도 이제 갓 마라톤에 입문한 초보 마라토너들이지만 열성만큼은 전문 마라토너에 뒤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주법과 스트레칭등을 공부하는 학구파다. 이혜정(여·29)회원은 가입한지 얼마 안된 막내 회원으로 5·18 기념마라톤 5㎞를 완주하며 마라톤 재미에 빠져있다.

이혜정 교사는 "운동을 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선배들의 아이들 지도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5·18 마라톤대회에 3학년 학생 15명이 참가해 완주하는 기쁨을 맛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계획이다"고 말했다.

살레시오마라톤동호회 교사들은 오늘도 전교생과 함께 뛰는 그날을 생각하며 힘차게 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살레시오초등학교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파이팅을 하고 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학교 운동장을 뛰기 전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있다.